

 국토교통부		<h1>보도해명자료</h1>	
		배포일시	2019. 5. 2.(목) / 총 1매(본문1)
기획재정부	국토교통 예산과	담당자	·과장 박봉용, 사무관 최동일 ·☎ (044) 215-7330, 7331
국토교통부	간선도로과	담당자	·과장 이정기, 사무관 정경인 ·☎ (044) 201-3888, 3891
보도일시		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

이번 추경에 반영된 일반국도 예산은 포항, 거제 등 재해·위기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점 지원사항입니다

- 정부가 추경 처리를 위해 야당 의원 지역구에 집중 지원했다는 등의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.
- 금번 추경에 반영된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일반국도 예산 1,490 억원은 추가 집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
 - 전국적으로 골고루 분포된 일반국도* 지원을 확대하되, 포항, 거제 등 재해·위기지역에 대하여 중점 지원**한 것입니다.

* 지역적으로 편중된 고속도로, 철도 등 대규모 건설사업은 추경 대상에서 배제

** 포항지역 국도(+160억원), 거제지역 국도(+80억원) 등

< 관련 보도내용 (한국경제, 5.1. 수) >

◆ 野에 SOC사업 예산 80% 배정한 정부

- “정부가 추가경정예산(추경)으로 편성한 사회간접자본(SOC) 사업의 대다수가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 지역구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.”고 하면서,
- “정부가 추경 처리에 비협조적인 야당의 반대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‘꼼수’를 쓴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.”라고 보도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
기획재정부 국토교통예산과 최동일 사무관(☎ 044-215-7331), 국토교통부
간선도로과 정경인 사무관(☎ 044-201-354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